

北韓學

84·4
北韓研究所

통일의 지혜를 한데 모아 통일문화를 함께 창조하는 월간지

卷
第
11
號
入



특집 ● 다시 中共을 생각해 본다

집중논의 '北韓學' 정립의 조건과 과제/조지 오웰의 '1984년' 현장-북한/그 인물의 최후 블은 대륙의 진시황-모택동/통일에의 길 현 승종 박사/실향인서예가 김홍집

84·4
北韓研究所

84·5
北韓研究所

北韓學

북한의 베스트셀러 '金日成語錄'
민족정통성 시각에서 본 金日成 정권
그 인물의 최후
'아프리카의 레닌' 프란츠 파농
소련 권력을 받쳐주는 네 기둥
년혁선
북한 교육 100일의 드라마



神
品

共產圈을 움직이는 신작





서 있다. 포신은 남쪽도 북쪽도 아닌 어중간 곳을 가리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솜사탕을 든 꼬마가 신기하다는 듯이 요모조모를 눈여겨 본다.

다른 한쪽에는 중기 기관차가 우뚝 멈춰 있다. 여기서부터 신의주는 4백 49킬로미터, 평양은 2백 14킬로미터, 부산은 4백 91킬로미터, 대전은 2백 14킬로미터. 부산과 신의주를 잇는 9백 40킬로미터의 철도 위를 단숨에 달린 날은 언제일까. 철마는 간절한 염원을 안은 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전마가 이런 바에야 북에다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임진각 창문으로 북쪽을 굽어보며 가끔씩 소줏간을 기울이곤 눈시울을 뿜히는 실향민들을 보노라니 가슴이 미어진다. 휴일이면 가끔씩 이곳을 찾는다는 실향민 이 강각씨(58세·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는 “편지 만으로라도 왕래가 가능하다면 오죽 좋겠느냐”면서 “72년 남북회담 당시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

‘‘정정되었는데 시금은 정전에 대한 결과가 자꾸 식어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한숨 짓는다.

반면에 한쪽에선 남녀 한쌍이 앉아 정답을 나누고 있다. 이젠 이곳도 실향민들이 한을 달랠 곳뿐 아니라 관광명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은 저마다 쌍쌍으로 어우러진 남녀들을 쏟아놓는다. 이른바 분단의 맷가로 얻은 관광이라고 할까. 하지만 이곳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의지를 배우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곳이 되어야 하리라. 통일로 역시 하이킹 코스나 관광도로로 존재하기보다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통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어야 하리라.

통일로를 달리면서 보게 되는 여러 개의 기념비들은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그 날의 비극을 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과거 해방이 되었을 때 白凡 선생은 남이 가져다 준 해방이었기에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찾자고 역설한 바 있다. 결국 통일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지 않는 한 완전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합쳐질 수 있는 통일만이 완전한 통일로써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

72년에 남북대화가 개최되었던 그때, 통인로는 그야말로 통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지금, 통인로는 길이 43킬로 지점에서 끊겨져 있다. 지금은 통인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인로 간 길.

따라서 통인로는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는 길, 통인의 의지를 심는 길, 통인의 신념을 다지는 길로서 진정한 통인로가 되어 한반도의 위 아래를 관통할 그날까지 통인의 염원을 안고 달리는 길이 될 것이다.

● 북한의 종교박해사 ①

尹恭熙대주교가 증언하는 洪龍浩주교 피남사건

8.15 해방 당시 평양 교구장이었던 洪龍浩 주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道格南 대주교에 이어 두번째로 탄생된 主教이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德源 수도원에 후(Saner) 주교가 있었지만 한국인인 洪 주교가 북한 천주교회 전체의 입장에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洪 주교는 소련군 사령부와 북한 공산 정권에 대해 교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 탄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지만 결국은 被拉되고 만다. 洪 주교의 피남 사건을 고비로 북한의 종교 박살정책은 양성화되면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洪 주교의 피남 사건을 전후로 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에서의 천주교 박해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洪 주교 피남 사건을 전후로 한 북한에서의 천주교 박해사를 당시 德源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몇 달 앞둔 異祭로서 생활했던 현 광주대교구 교구장 尹恭熙 대주교의 증언을 통해 재조명해 본다.

글 ● 卜鎮興

1943년 3월 21일, 37세의 나이로 제5대 평양 교구장으로 임명된 洪龍浩 신부의 着座式은 평양 관후리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평양 교구의 신자 수는 약 3만명.

1927년에 신설된 평양 교구의 사목은

처음에는 美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담당하게 되었고 초대 교구장으로 方(Byrne) 주교가 맡아온 이래 계속 미국인 성직자가 관리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洪 주교가 교구장에 임명됨으로써 평양 교구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

洪 교구장은 1944년 4월 17일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주교 및 교구장으로 정식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6

월 29일에 주교품에 成聖됨으로써 基南 주교에 이어 두 번째로 邦人 주교가 되었다. 평양 교구장에 임명된 洪 주교는 늘 邦人 사제가 부족한데 큰 어려움을 느끼면서, 신학생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낭시 德源 신학교에서 사제의 길을 준비하고 있던 尹恭熙대주교의 만남도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은 1937년 봄이었는데,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洪 주교님을 뵙게 된 것은 방학을 전후하여 신학생들이 모두 주교관으로 가서 인사를 꼭 드렸기 때문이지요. 洪 주교님은 邦人 주교이셨기에 특히 우리 신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소신 학생들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시면서 깊은 애정을 보여 주셨어요.”

1924년에 출생한 尹 대주교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천주교회서 운영하던 海星 학교와 평양 관후리 천주교회의 聖母보통학교를 거쳐 德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부친인 尹豫은 진남포 천주교회에서 본당 회장직을 맡아 강직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직무에 충실했던 신자였다.

수난의 표적 - 德源 수도원

德源 수도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사에서 하나의 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독 오텔리엔에 본부를 둔 이 수도회는 당시 함남 德源에 수도원과 신학교를 두고 있었고, 심오한 학식을 지닌 수사와 신부들이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德源 수도원이 폐쇄될 당시에, 수도원

과 우리 신학교를 합친 식구들은 신학생과 고용인들까지 모두 합해서 대략 1백여명 쯤 됐을 거예요.”

많은 식구들의 생활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德源 수도원은 방대한 농토와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德源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를 농토와 산림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오히려 수난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이름으로 46년 3월에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몰수하기 시작했는데, 이 법령 제3조에는 ‘5정보 이상을 소유한 聖堂·僧院,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를 무상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德源 수도원이 소유한 토지가 몰수된 것도 바로 이 ‘법령’ 때문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수도원과 신학교 건물이 있던 주변의 수도원 농장은 수도원이 폐쇄될 때까지 공산당에 버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신학교 농토로서 안변군에 있던 땅이었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다른 곳에 있던 땅이 대신 몰수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당시에 들기로는 신학교 농토를 뺏겨서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돈으로 식량을 사지 않으면 안되리 만큼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었음을 블립 없어요.”

서독 오텔리엔에 있는 분도 수도원 본부의 문헌에 의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元山에서 토지개혁 당시 농토 뿐만 아니라 수도원 주변의 포도원과 포도주 생산공장, 그리고 인쇄소까지



“청년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西浦와 西平壤 사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洪주교님은 피난되었던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선…”

았으려 했으나 자유세계의 반발을 두려워한 소련군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聖地 회복과 소련의 이중정책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해서 주둔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48년 말 까지는 아직 종교에 대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박해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공산화 계획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종교정책은 본래 토지 개혁과 같은 일련의 이른바 ‘民主改革’처럼 한꺼번에 단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다만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특히 소련군이 종교 박해라는 어려운 정책을 스스로 관찰하여 污名을 뒤집어쓰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인 자신들에게 맡기려 한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종교 탄압과 박해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변의 와중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척 하다가 자기들의 세력이 어느정도 구축된 다음에는 사정없이 탄압하기 시작한 것 이지요. 그들이 자행한 숙청에서도 종교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천주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洪주교님이 납치되실 때까지는 비밀에 불었지만 49년 말에 가서는 공개적으로 신부님들을 체포해 갔거든요.”

洪주교는 소련 朝政과 金日成 집단의 이와 같은 단계적 조치에 대응해 가면서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갔다. 여기서 《天主教 平壤敎區史》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洪주교는 8.15 해방과 더불어 44년 1월 日帝에 의해 강제 징발되어 빼앗겼던 평양 관후리 주교좌 聖地를 되찾는 문제를 무엇보다 서둘렀다. 그리하여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대리이며 정치국 보좌관인 코뇨스키 소좌가 주교관을

방문하였을 때 洪 주교는 관후리聖地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때 코노스키 소좌는 서슴지 않고, 약소 민족을 해방시킨 소련군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사명을 지닌 것이니 만큼 교회재산은 마땅히 되찾을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약속했었다.

소련군 장교의 말에 자신을 얻은 洪 주교는 聖地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한편, 부감목인 金泌現 신부와 주교 비서인 康昌熙로 하여금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두 사람은 곧 평양시 인민 위원장 韓根祖를 찾아가 관후리 성당을 천주교에 반환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市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토의해 보겠다면 韓根祖는 머칠 뒤에 市 인민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다고 통고하고 말았다.

이에 놀란 교회측은 다시 대표를 市 인민위원장실로 보내 聖地 문제에 관해 따졌는데 이 때에는 소련군 장교 한 명이 동행했다. 소련군 정치국에서 파견된 이 장교는 韩根祖에게 '인민위원회의 결정은 종교를 무시한 아주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또 소련군은 조선 인민과 그의 종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관후리 聖地를 교회^에 되돌려 주라는 뜻으로 의사를 비치자 韩根祖는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힘써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 날 洪 주교는 金泌現 신부와 함께 당시 평남 인민정치위원장인 曹晚植 선생을 찾아 갔다. 이미 오래전부터 친교가 있던 曹晚植 선생에게 洪 주교는

聖地 문제에 대한 사건 전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曹晚植 선생은 그 자리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다. 曹晚植 선생은 1935년 조선 천주교 전래 150주년 기념 축하회에 참석하여 축하회 끝에 만세 삼창을 선창, 축하식이 성대히 막을 내리게 하는 귀빈이 되기도 했던 터라 聖地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회와 평양시 인민위원회 간에 聖地 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근 한 달 반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옥신각신만 되풀이 될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해를 넘기고 46년 3월에 이 문제는 겨우 가결을 보아 4월 1일자로 소유권에 필요한 등기를 완료 함으로써 7~8 개월에 걸친 투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수난의 역사는 곧 이어 닦쳐 왔다. 聖地 회복을 둘러싸고 밤낮으로 앞장서 애쓰던 주교비서 康昌熙가 어느 날 갑자기 괴한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만 것이다. 해방을 맞은 평양교구에서 첫 회생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협상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비에 맞닥뜨리게 된 협상에 대해 소련군 사령부가 표면상으로는 교회를 응호하는 체하면서 뒤로는 정반대의 지령을 인민위원회에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음흉한 2중 정책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洪龍浩 주교가 피난되던 날

"내가 洪 주교님의 피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난되신 날 저녁이었어요. 우

리는 46년 5월 7일인가요, 새벽의 깊은 한 때에 辛(Saner) 주교님과 洪(Roth) 원장신부님, 부원장이신 安(Schleicher) 신부님과 吉(Klingseis) 신부님 등 네 분이 체포되신 후 5월 13일까지 1주일 동안 연금되어 있었어요. 그 후 풀려나와 겨우 차표를 구해 가지고서는 기차로 西平壤역에 도착하니 오후 6시쯤 됐더군요. 그 길로 관후리 성당으로 갔죠. 가보니까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앉아 계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놀라면서 말씀해 주셔서 洪 주교님이 피난된 걸 알았지요."

洪 주교는 德源 수도원의 성직자들이 체포되고, 수도원과 신학교 마저 봉쇄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당국에다가 공식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 항의문이 북한 정권의 내무상 朴一禹에게 전달되자, 북한 정권은 洪 주교와 면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비쳐 왔다. 그렇지만 洪 주교가 기다린 5월 14일에도 면담통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洪 주교는 이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西浦 성모회수녀원에 가기 위해 단신으로 爱犬만 데리고 西浦로 떠났다.

오후 4시경, 내무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후 6시 정각에 내무상 방에서 洪 주교와 면담하자는 연락이었다. 통지를 받은 부감목 金泌現 신부는 곧 자동차를 빌려 타고 주교관으로 洪 주교를 찾았으나 洪 주교는 이미 西浦로 떠난 다음이었다. 金泌現 신부는 자동차로 西浦까지 뒤쫓아갈 여유가 없음을 알고는 내무상이 6시에 면담하자는 요지의 急報를 주교관에서 일을 보던 金運三 소년

에게 주고는 洪 주교에게 급히 전하도록 했다.

急報를 전해받은 洪 주교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두 소년과 함께 4시 50분쯤 평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6시가 넘도록 주교와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7시가 되어서도 주교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부감목 金 신부는 즉시 주교의 행방을 전연 알 수 없다고 내무상에게 통고하고는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는 수십명의 청년 교우들을 동원하여 西平壤에서 西浦까지의 길을 살살이 뒤지면서 도로 근처의 민가에 까지 들어가 동정을 알아봤다. 그러나 洪 주교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에 주교비서 催恒燮 신부는 西平壤 내무서에 직접 가서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협조를 요청했다.

"청년들과 함께 밤을 새워 가며 西浦와 西平壤 사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洪 주교님은 피난되셨던 거예요. 사실이야 뻔하였지만 그렇더라도 우선은 찾아보려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더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 뒤엔 西平壤 내무서장 앞으로 수색원을 제출 했지요. 그들은 처음엔 찾는 척 하더군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들에게 '당신네들이 洪 주교를 월남 시켜 놓고 그것을 은폐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찾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나오더군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한테 덮어 놔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북한 침묵의 교회 속에 분명히 신자들이 남아 있다고 봐요. 또 이들은 그들 앞에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뒤 洪 주교의 피남 사실을 중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西浦수녀원 근방에 사는 어느 여자 교우는 洪 주교가 수녀원에 온 날,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수녀원을 지켜보았다고 중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沙里院 파출소 옆에 사는 채소장수 할머니는 트럭이 한대 와서는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쓴 어른 한 분(洪 주교)과 소년 2명을 태웠으며, 나중엔 개끼지 실을려고 하니까 개가 반항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사실 洪 주교님이 불법 남치된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있었지만 洪 주교님의 행방을 몰랐기 때문에 평양 시내 각 유치장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수소문을 했답니다. 그러나 洪 주교님의 행적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그후 얼마가 지난 다음에 교화소(형무소)의 한 직원을 통해서 洪 주교님이 평양 인민교화소 특별정치범 감방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내 기억으로는 그 교화소 직원이 일반 감시직원이 아니라 교화소에 배치되어 있던 의사인데, 교우였나 봐요.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주교님의 신상에 관해 조금씩 알수 있었어요. 그것도 50년 1월까지이고, 그 후에는 다시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감방은 자주 바뀌었지만 같은 교화소내에 수감되어 계시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기 직전인 10월인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북쪽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아직도 생사를 정확히 알 수 없답니다.”

‘침묵의 교회’로 가라앉은 북한

洪 주교가 불법 남치된 지 채 한달도 못되어 평양교구 부감독인 金認現 신부와 주교비서인 崔恒俊 신부 또한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초까지는 평양에 남은 4명의 신부마저 모두 체포됨으로써 평양에는 신부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나는 원래 고향도 진남포이고 해서 진남포 본당에 있었어요. 49년 성탄절 때는 벌써 평양에 신부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평양시내의 신자들이 西浦·鎮南浦·沙里院 등지에 남아 있는 신부님들을 찾아 수백명 씩 몰려가 판공 성사도 보고 주일과 축일 미사를 지

내야만 했었지요. 내가 있던 진남포 본당에도 성탄 때엔 평양에선 많은 교우들이 내려와서 슬픔을 나누며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평양의 49년 성탄절은 신부도 미사도 없는 쓸쓸한 성탄절이었다. 그야말로 ‘침묵의 교회’로 가라앉아 가는 북한 교회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평양교구 신부는 모두 14명이었는데, 49년에는 江界·新義州·永柔의 주임신부들이, 그리고 6·25를 전후해서는 鎮南浦·安州와 平南의 馬山·義州·批觀의 신부들마저 체포됨으로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투옥되기에 이른다. 그밖에 평양교구 이외의 북한 지역인 황해도와 강원도에 남아 있던 10여명의 신부들도 50년 10월 沙里院의 全德均 신부를 마지막으로 모두 체포되었다.

이렇게 북한 정권에 체포된 한국인 성직자들은 옥사되거나 피살되었거나 또는 행방불명으로 모두 회생됨으로써 북한 천주교회는 완전히 암흑으로 뒤덮인 침묵 속에 묻혀 버리고 말게 된다.

당시 체포된 성직자들의 옥중 수난과 순교에 대해서는 앞서 尹 대주교의 증언에서 언급된 교화소 직원(의사)과 또 다른 직원이 협조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다. 그러나 교화소 내에는 특별 감방이 1호부터 4호 까지 4개가 있었는데, 협조적인 직원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1~2호 감방에 국한되었으므로 3~4호 감방에 갇힌 성직자들의 사정은 소상하게 알기 어려웠다.

여기서 《천주교 평양교구사》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50년

1월 초에 강원도 주康 본당 주임이던 白彥萬 신부가 옥사하여 용산리에 있는 용산공동묘지에 묻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修士가 그 곳에 가서 쉽게 무덤을 찾고는 작은 나무 풋말에 ‘白彥萬之墓’라 기록한 묘비를 꽂아 놓았다.

그리고 白彥萬 신부가 病死한지 한 달 후인 2월에 德源 수도원 대원장인 夏周교가 옥사했는데, 이 때에도 修士와 수녀 한 분이 심야에 새 무덤들을 파고서 시체를 확인하다가 결국은 夏 주교의 시체를 찾아서 다른 곳 땅을 파고 매장한 뒤 사발을 엎어 묻어 표시를 해놓았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 초에 德源신학교 吉 신부가 또 옥사했는데 그 修士와 수녀는 다시 한번 移葬 작업을 맡았던 것이다.

‘종교가’라 기록된 공민증

“내가 월남한 것은 50년 1월 이었지요. 진남포 성당에서 趙文國 신부님을 모시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원주 교구장으로 계신 池學淳 주교님과 함께 월남을 하게 됐지요. 나는 副祭였고, 池 주교님은 나름까지 받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우선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池 주교님이 쓰신 회고록인 〈내가 겪은 공산주의〉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49년 이후에는 벌써 월남하는 것이 어려웠고, 50년에 들어서면서는 정말 힘들었지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이북에서 안내자를 따라 올 때보다 38선을 넘어 와서가 더 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

은 우리가 월남 당시에 소위 '공민중'이란 것을 갖고 있었고 우리 신학생들은 그 공민중에다가 '종교가'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우리 신분을 바로 믿게 되고 서울교구청으로 보내 주게 되었어요."

당시 副祭였던 尹 대주교는 두 달 정도 지난 50년 3월 20일에 평양 교구청에서 일을 보다가 뛰어 남한 張善興 부제와 함께 사제로 서품된다. 서품 후 잠시 명동성당 보좌신부로 있다가 6·25가 발발하자 종군신부가 되었고, 평양 수복시에는 평양에 들어가 평양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安(George Carroll) 신부와 함께 수복 지구를 순회하며 교회의 안전과 신자들을 돌본다.

"평양이 수복되면서 종군신부로 관후리 성당을 다시 찾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6·25 전에는 관후리 대성당의 준공을 보지 못하고 뼈대만 세웠기 때문에 미사를 지하실에서 드렸었는데, 수복 초에 가서 보니까 공산당이 그 지하실을 인쇄소로 사용하면서 광장을 차려 놓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창문도 없지만 1층에서 봉헌했지요. 그리고 安 교구장님의 명에 의해 永柔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부임하기도 전에 1·4 후퇴를 당하자 평양을 철수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평양을 떠난 尹 대주교는 휴전 후 서울 소신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잠시하다가 로마 올바노 대학과 그레고리안 대학으로 유학하게 된다. 여기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그는 63년

에 수원 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20일엔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직접 주교품에 오르게 된다.

수원 교구장으로서의 10년 사목 활동 후 尹 대주교는 73년에 대주교로 승격되면서 광주대교구장에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데 서린 평양교구 사목의 염원을 풀지 못하고 있는 尹 대주교는 북한의 '침묵의 교회'에 대해 말한다.

"나는 북한 침묵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월남 직전에 진남포에서 모시고 있던 趙 신부님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趙 신부님도 남하를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회장님에게 준비까지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洪 주교님의 비서로 계실 때 洪주교님이 만약 박해가 닥쳐서 모두가 잡혀가면 순교를 하겠지만, 평양교구 신부가 전부 사라지면 어떻게 후일에 평양교구를 재건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하여 월남을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유혹이 아닐까 하고 고민도 하셨지요. 副祭이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신부님께서 잡혀가시거나 월남을 하시거나 신자들에게서 떠나는 것은 명단관화한 일이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 월남을 하시더라도 월남한 경우와 신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잡혀 가시는 것과는 남아 있는 신자들에게 주는 느낌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趙 신부님은 그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회장님을 불러 남하 계획을 취소시키시고 결국은 나중에 안일이지만 6·25가 나던 날 새벽에 남하되어 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북한 침묵의 교회 속에 분명히 신자들이 남아 있다고 봐요. 또 이들은 그들 앞에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광명의 날을 기다리며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 선교와 교황의 訪韓

금년은 한국 천주교 2백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尹 대주교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교위원회 위원장이며, 이 주교위원회 산하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는 金蒙思 신부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북한 선교사업부가 발족되어 있다. 북한 선교사업의 의의를 대변한 북한 선교의 회망에 대해 尹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지역은 정말 선교의 씨가 엄청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비옥한 육토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진남포에 있던 49년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당시 교회가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고 성직자들이 체포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예비교리를 받고 입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때 청년들은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도 복음의 진리를 찾는 일념으로 입교하던 모습을 보면, 비록 성직자도, 성당도, 성경책이나 교리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찾는 열정으로 서로 의탁해 가면서 신앙을 고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북한 선교 사업은 이와 같은 일정이 식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느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더 새로운 용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침묵의 교회 장벽 너머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백년 동안 수 만명의 순교자를 낸 엄청난 박해를 견디어 낸 뒤에 또다시 침묵의 교회로 변해 버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 3세기의序幕을 여는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목 방문을 눈앞에 두고 바쁜 모습이다. 그러나 이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한국땅을 밟는 교황의 축복의 메시지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침묵의 교회를 일깨우는 참된 위로가 되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담고 있는 韓民族의 고통의 의미를 깨우치는 새로운 회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는 겸허하고 고요하게 2백주년의 각종 기념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육중하고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씀을 들려주신 尹 대주교의 모습처럼....



변진호(卞鎭昊)
1950년생. 가톨릭 신학대학과 서울대 대학원 국민총리과 졸업.
(교육학 석사). 북한연구소 연구차장 역임. 현재 호남대학 전임강사
인. 한국교회사연구회 총무 맡고 있다.